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3.31(금) ~ 2023.04.06(목)

제공일시 2023 04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3.31(금) ~ 2023.04.06(목)

제공일시 2023 04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배 늘린다...42.5%로 상향 합의

-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3자 협상 끝에 오는 2030년까지 27개 회원국 전역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 32%에서 42.5%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음
- 당초 집행위와 유럽의회는 의무 확대 비중을 45%로,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40%를 주장했으나 42.5%로 절충점을 찾았으며, 타협안을 통해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최대 45%까지 비중을 늘리도록 권고했음
- 이날 3자 협상에서는 전체 목표치와 별개로, 그간 재생에너지로의 '통합'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운송·산업·건물 냉난방·바이오에너지 등 세부 분야에 대한 재생에너지 확대 지침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음
- 이 밖에도 이번 합의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관련 신규 산업에 대한 신속한 허가 절차 도입 대책 등도 포함됐으며, 이날 타결된 합의안은 향후 유럽의회, EU 이사회에서 각각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됨

(조선비즈, 2023.03.31) 유병훈 기자

(연합뉴스, 2023.03.31) 정빛나 기자

2. EU, 초강력 온실가스 F가스 사용 줄이는 법안 합의

- EU는 냉장고와 에어컨에서 초강력 온실가스 사용을 줄이는 법안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나, 각 국가와 의원들은 이를 얼마나 빨리 폐기할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 EU 각국은 F가스(불소가스), 즉 히트펌프와 냉장고 냉매, 에어로졸 등에 사용되는 인공가스 사용을 줄이기 위한 협상에는 합의했음
- 이 협상은 2024-2028년까지 이러한 가스의 판매가 2011-2013년 연간 평균의 6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2036년부터는 15%까지 줄여야 함
- 하지만 EU의회는 시기를 앞당기기를 원하며, 2050년까지 F가스 판매 전면중단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음

(Reuters, 2023.04.06) Kate Abnett 기자

3. 일본, 149조원 투입해 2040년 수소 공급량 6배로 늘린다

-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과 함께 15조 엔(약 149조원)을 투입, 2040년 수소 공급량을 현재의 약 6배인 연간 1천200만t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수소 공급량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소 기본 전략'을 내달 말에 확정할 예정임
- 일본 정부는 2030년 무렵 수소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 대규모 공급망과 생산 거점을 구축할 방침임
- 아울러, 같은 해에 그린수소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전기분해 장치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로 올린다는 계획도 세웠으며, 국내 기업 지원을 통해 구부러지는 태양전지 양산 체제를 2030년까지 갖춰 공공시설과 역, 학교 등에 보급할 방침임

(연합뉴스, 2023.04.03) 박상현 기자

1. 자발적 탄소시장 핵심원칙 발표 고품질 탄소크레딧 판별

- 30일 자발적 탄소시장을 위한 무결성 위원회(ICVCM)에서 핵심탄소원칙(CCP) 10가지가 발표됐음 [\(매거진한경, 2023.03.31\) 조수빈 기자](#)
- 10가지 원칙은 ▲효과적인 지배구조 ▲추가성 ▲완화 활동에 대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 영구성 ▲이중계산 방지 ▲강력하고 독립적인 제3자 검증 등으로 구성돼 있음
- 탄소배출권 프로그램의 초기 평가는 올해 중순 시작될 예정이며 연말이면 CCP의 배출권 첫 승인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탄소배출권 인증 및 발행기구인 베라(Verra)의 탄소배출권까지 최근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이며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탄소배출권 중개자 수수료 불투명성 등은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대통령 직속 '기후테크' 지원 별도대 만든다...탄녹위, 전문위 구성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기후테크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 '기후테크 전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함 [\(국민일보, 2023.04.06\) 허경구 기자](#)
- 기후테크 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의 선정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임
- 기후테크 전문위원회는 탄녹위 산하 4곳의 분과위원회 중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회 아래 하위 기구로 편제될 것으로 예상됨
- 위원회는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모색하게 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손질하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3. 'IRA 충족' K배터리, 美보조금 받지만...2년 뒤엔 中광물 끊어야

-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 4월 18일부터 시행.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함 [\(연합뉴스, 2023.04.01\) 강병철 기자](#)
[\(국제신문, 2023.04.01\) 이석주 기자](#)
-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 다만,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는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대상이 되지 않음
- 재무부는 다음 달 18일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리스트와 세액 공제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 중국산 광물을 쓰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공급망 탈중국'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1. 뮌헨리, ‘넷제로보험동맹’ 탈퇴

- 유럽 최대 보험회사 중 하나이자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뮌헨리가 반독점 위험을 이유로 ‘넷제로보험 연맹(NZIA) 가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 NZIA는 2021년 뮌헨리를 창립 멤버로 설립되었으며, 보험회사들의 넷제로 전환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뱅가드가 넷제로자산운용사동맹에서 탈퇴한 데 이어 두 번째임
- NZIA는 또한 넷제로를 위한 클래스고 금융동맹(GFANZ)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는 넷제로 자산운용사 동맹(NZAM), 넷제로 자산소유자동맹(NZOA), 넷제로 은행동맹(NBA) 등이 포함돼있음
- 뮌헨리는 동맹 탈퇴에도 불구하고 2025년 말까지 투자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29%, 2050년까지 넷제로 감축, 기후 관련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배출량을 줄이는 등 기후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며, 당분간 관련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ESG Today, 2023.03.31) Mark Segal 기자

2. 로레알, 캐나다서 제품 영향 라벨링 시스템 도입

- 뷰티업체 로레알이 캐나다에서 제품 영향 라벨링 시스템을 도입해, 제품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하고
- 로레알은 1500명의 캐나다인 대상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80%가 지속가능한 선택을 원하며, 소비자 3분의2가 제품의 환경영향 정보 제공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 로레알의 라벨링 시스템은 프랑스에서 2020년에 처음 시작했으며, 온실가스 배출, 물부족, 해양산성화, 생물다양성 등 14가지 요인을 성분 소싱에서 포장 폐기까지 제품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 조사, A부터 E까지 점수를 할당함
- 이번 라벨링 시스템은 2022년 12월 미국에도 도입됐으며, 환경뿐 아니라 노동기준에 대한 유엔기본원칙 준수, 사회적 포용정책을 지키는 협력업체 수 등 사회적 영향 정보도 제공함

(ESG Today, 2023.04.03) Mark Segal 기자

3. TNFD, ‘자연 관련 위험 관리’ 공시 프레임워크 최종판 공개

- TNFD는 최근 ESG경영에 나서는 기업들의 자연 관련 리스크 평가와 해결을 목적으로 설계한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음
- 이번이 4차이자 최종본 초안이며, TNFD가 올해 9월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공개한 이번 프레임워크는 3차 프레임워크를 다소 수정한 것이라, 이전 버전과 비교해 큰 틀에서 달라진 것은 없지만 몇가지 개선된 사항이 있음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안한 권고 공시 건수를 15건에서 14건으로 줄인 것으로, 이번 최종 프레임워크에는 이전 버전에서 제안됐던 ‘자연과 기후 목표’에 관한 ‘평가지표 및 목표설정 D’가 빠졌음
- 이 외에도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의 참여 지침 ▶4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해당하는 지침 ▶4종의 생물군계(biome)에 대한 지침에서 이전 버전과 비교해서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졌음

(임팩트온, 2023.04.05) 송선우 기자

1. "쓰레기가 돈 된다"...오픈도 전에 주문 쏟아진 SK 도시유전

- SK지오센트릭이 세계 최초로 조성할 예정인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합 단지 '울산 ARC'에서 만들 열분해유에 글로벌 기업들이 선(先) 계약 주문을 앞다퉀 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지오센트릭은 글로벌 식음료 업체 A사와 '울산 ARC'에서 만들 예정인 열분해유에 대한 약 1만~2만톤 수준의 선 판매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음
- 이외에도 글로벌 업체 B사, C사 두 곳이 각 1만5000톤 규모의 주문을 이미 넣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SK지오센트릭은 공장 개장 전까지 재활용 물량의 70%를 선 판매하고, 남은 물량 30%는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음
- 글로벌 기업들이 SK지오센트릭의 열분해유에 이른 주문을 넣고 있는 것은 2025년을 전후로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필수' 규제가 현실화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며, 이런 시대가 열리면 열분해유는 '도시 유전'이라는 말 그대로 고부가가치 자원이 될 것으로 보임

(머니투데이, 2023.04.03) 최경민 기자

2. 한화솔루션 '바이오PVC' 시장 진출...이달부터 상업생산 개시

- 한화솔루션이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이어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시장에도 진출함
- 한화솔루션은 국내 폴리염화비닐(PVC) 가공업체 7곳과 '탄소저감을 위한 바이오 PVC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식물에서 유래한 친환경 원료 기반의 PVC 사용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공개함
-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바이오 PVC 기반의 제품 생산과 가공을 위한 유럽연합(EU) 기준의 지속가능성 인증인 'ISCC(International Sustainability & Carbon Certification) plus'를 취득, 각 가공업체의 인증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시장 개척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 한화솔루션과 각 가공업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최초로 바이오 PVC를 적용한 바닥재·벽지·파이프·타포린·랩 등의 제품 생산에 나서고, 이달부터 울산과 여수 공장에서 바이오 PVC를 생산해 각 업체에 공급할 계획임

(뉴스트리, 2023.04.05) 이재은 기자

3. HD현대오일뱅크, 수소밸류체인 구축 '박차'...폐플라스틱 재활용도 추진

- HD현대오일뱅크가 블루수소 생산부터 이동형 수소 충전소까지 '수소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HD현대오일뱅크는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벌비스, 현대로템과 함께 광진구 중곡LPG 충전소 부지를 활용, 국내 최초로 이동형 수소 충전소 서비스를 제공함
- 현대차의 25t 대형트럭인 엑시언트에 수소압축기, 저장 용기, 냉각기, 충전기 등 핵심 설비가 모두 탑재돼 하나의 완벽한 수소 충전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이외에도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 공장에서 생산한 블루수소를 투입하여 발전용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 있는 친환경 발전소 건설도 계획하고 있음

(뉴시스, 2023.03.31) 유희석 기자

(서울신문, 2023.03.31) 김태근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3.31(금) ~ 2023.04.06(목)

제공일시 2023 04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ppa 계약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글로벌 기업들

- 덴마크 풍력발전 기업 오스테드(Ørsted)는 구글과 15년간 150MW의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전력 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계약은 미국에서 구글과 오스테드간 이뤄진 첫 번째 계약이며, 지난 2021년 독일 보르크(Borkum) 지역 리프그룬트(Riffgrund)에서 해상 풍력 전력 50MW를 구매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성사된 계약임. 이번 계약의 전력은 텍사스에 기반을 둔 헬레나 풍력 발전 지역(Helena Wind Farm)에서 생산될 예정임.
- 텍사스 주 비 카운티(Bee County)에 있는 268MW 풍력 발전 단지는 2022년에 시운전되어 약 9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텍사스 전기 위원회(Electr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 ERCOT)에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이 계약은 2030년까지 모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지역 및 사무실을 연중무휴 무탄소 에너지(CFE)로 운영하겠다는 구글의 목표에 따른 것임.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은 2020년에 '24/7 CFE 서약(Carbon Free Energy Compact)'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사무실을 비롯한 전체 사업을 무탄소 에너지로 운영하는 것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모든 지역에서 매일 매시간 전기 수요와 CFE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함. 지난달 구글은 PPA에 더 빠르고 쉬운 제안 요청(RFP) 프로세스를 이용해 거래 협상 및 실행 시간을 약 80% 단축하기 위해 재생 가능 거래 인프라 제공 업체인 레벨텐 에너지(LevelTen Energy)와 협력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구글의 에너지 책임자인 사나 오우지(Sana Ouji)는 "24/7 무탄소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면 시간당 생산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혼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은 오스테드와의 파트너십을 지속하고 이 풍력 프로젝트를 ERCOT의 기존 태양열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달라스 클라우드 지역 외부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아마존 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는 또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호주 데이터 센터에 5년간 132억 호주달러(약 12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AWS가 호주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호주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임. 아마존은 그동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쟁기업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뉴사우스웨일스 및 빅토리아주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음.
- 이에 따라 AWS 호주는 이 계획을 통해 건설, 시설 유지 관리, 엔지니어링 및 통신 분야 등에서 1만 1000개의 일자리를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음.
- 또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는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Iberdrola)와 전력 구매 계약(이하 PPA)을 체결했음. 이 계약으로 벤츠는 발트해 풍력 단지에서 140메가와트(MW)의 풍력 에너지를 공급받음

[\(임팩트온, 2023.04.06\) 유미지 기자](#)

[\(임팩트온, 2023.04.03\) 홍명표 기자](#)

-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공장 에너지 수요의 70%를 차지하도록 하는 벤츠의 목표에 따른 계약임. 벤츠의 탈탄소화에서 큰 몫을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45%를 차지하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맡고 있음. 이에 더해 벤츠는 2039년까지 전 세계 모든 생산 공장에서 100% 재생 에너지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베르드롤라는 성명서에서 이번 계약은 자동차 회사와 맺은 가장 큰 계약 중 하나라고 말했지만 금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음. 또 이베르드롤라는 "발트해 윈드앵커(Baltic Sea Windanker) 프로젝트의 용량이 315메가와트로 2027년 완전히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베르드롤라는 이미 발트해에서도 35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지역에 476메가와트 급의 단지를 건설하고 있음.